

정수복의 '응답하는 사회학'



가족은 무엇하러 있는가?

이혼은 1980년대만 하더라도 결혼 이후 5년 안팎의 젊은 부부의 경우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지금은 40대 50대 이혼이 더 많아졌다. 젊은 세대의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황혼 세대에 역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나이가 들었어도 과거처럼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1960년대에 태어난 386세대는 이혼을 터부시하는 분위기를 갠 첫 세대였고 그 이후 세대에게는 불행한 결혼생활의 경우, 힘들긴 하지만 이혼은 인생에서 거쳐야 할 하나의 관문이 되었다. 1980년대 프랑스 유희시절 경험했던 현상이 이제 한국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급속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전통적 유대가 약화되고 남녀평등의 이념이 일반화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초, 호주의 시드니에 연구 자료를 수집하러 간 적이 있다. 어느 날 저녁 호텔 주변의 선술집에서 함께 간 동료 사회학자와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40대 말이나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 중 한 사람이 나를 특목 건드리면서 자신의 그런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리 불은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중년 남자의 얼굴을 보고 나는 즉각적으로 '친구처럼(friendly)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협석을 해도 좋겠냐고 물었다. 그래서 네 사람이 함께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이 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중년의 두 남자는 둘 다 이혼 상태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인들이 모두 다른 남자를 만나 가정을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가부장제 의식을 가지고 부인들을 억압한 것 아니냐고 넌지시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페미니즘이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만 여성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집안을 뛰쳐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페미니즘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는 부정적인 사고라는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술 마시고 하는 푸념이나 하소연 정도로 취급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속 깊은 사연을 솔직하게 말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고맙다면서 맥주 값도 자신들

이 지불했고 더운 날씨에 쓰고 다닐 밀짚 모자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그들의 처지를 그때보다는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그들이 했던 말을 다 믿지는 않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잘못 이해된 페미니즘이 가져오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래 세월 동안 남성 중심 주의 사회에서 억압받아 온 여성들이 해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적극 동의한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은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방된 여성들은 이제 다시 남성들과 평등하고 평화롭고 조화롭고 호혜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여성은 해방되었는데 남성들이 너무 천천히 변하고 있다는 주장도 맞다. 그러나 여성해방이 마치 여성들이 '명예 남성'이 된 듯 과거 남성들이 여성에게 대했던 방식으로 남성들을 대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닐까 싶다. 어쩌면 남성들이 더 고생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남녀 평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상호 무사하고 일방적 억압으로는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다.

가족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사회에서 개인을 지켜 주는 마지막 보루다.

이상적인 가족생활은 사랑과 배려의 부부 관계로 시작되어 지지와 격려의 부모·자녀 관계로 이어진다. 그런 사랑과 상호 인정의 호혜적 관계 속에서 개인은 안정감과 자존감을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꾸려 갈 수 있다.

방든 가족 관계는 구성원들에게 구속으로 작용하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지며 언젠가 깨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부부 관계는 가족생활의 바탕이다. 부부 관계가 어긋나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도 망가진다.

가정은 오랫동안 가족 이기주의의 온상이 여성 착취의 도구라고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 가장 원초적인 조직이다. 그 가정을 신뢰와 사랑, 지지와 격려의 장소로 만들지 않고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가족은 비판의 대상에서 재구성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내와 남편, 엄마와 아들, 아버지와 딸 등 가족 내의 상호작용이 서로를 지지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바뀌고, 가족 안에서 배운 인간관계의 방식이 가족 밖에서도 통용될 때, 세상은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사회학자·작가)

의료칼럼

갑상선과 삶의 질



양 대영 태영21병원 원장

자기 몸, 즉 갑상선에 대한 항체가 생겨 스스로 갑상선을 외부 물질(근)로 착각해 공격하는 항체를 자가항체라고 부르는데, 갑상선기능 이상의 대부분이 이 자가면역 때문에 발생하며 이는 유전적 소인이 원인이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의 대표 그레이브스, 저하증의 대표인 하시모토갑상선염이 바로 자가면역질환이고 갑상선질환의 약 90%를 차지하는 대표적 질환이다.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지면 대사속도가 빨라져 기능항진증이 되는데, 땀을 많이 흘리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또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지며, 심장과 위장운동이 빨라져 대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를 한다. 손 떨림도 흔한 증상이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대사속도가 느려져 추위를 못 견디고 얼굴과 손발이 붓고, 체중이 증가한다. 위장운동이 느려져 변 비가 발생하며 기억력도 감퇴한다.

심한 상태의 갑상선기능 항진이나 저하증이라면 환자의 모습만 슬쩍 봐도 진단할 수 있지만 확진을 위해선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치료는 약물요법, 방사선요법, 수술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서로 보완적이다. 즉,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에 실패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원인에 관계없이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이 치료의 전부다. 신지롤이드(혹은 신지록신)라는 약제인데, 용량조절만 잘하면 평생 복용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

이제 갑상선암에 대해 살펴보자. 갑상선 종양, 혹, 결절, 낭종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다. 갑상선에 혹이 생긴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이 혹이 암인지 구분할 때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이라고 표현한다. 악성이 암이다. 요즘 가이드라인은 암이 의심돼도 혹이 크지 않으면 지켜보는 것인데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여성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유즙분비 호르몬과 갑상선기능검사다. 갑상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젊은 여성의 고반응 '혹시 불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과 '약 불복용 중 임신은 해도 되는가'다. 실제 갑상선질환이 있으면 임신이 잘 되지 않지만 치료를 적절히 하면 불임이 되지는 않는다. 또 갑상선 약은 임신 중 복용해도 안전하다.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만들 때 원료로 사용하는 게 요오드다. 몸에서 요오드를 필요로 하는 기관은 오직 갑상선이다. 당연히 요오드 섭취가 부족하면 호르몬을 만들지 못해 기능저하증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해산물을 많이 먹는 편으로, 요오드결핍에 의한 질환은 없지만 갑상선질환이 있는 경우 필요 이상 많이 먹으면 치료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즉 갑상선 질환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안 먹을 필요는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있는 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갑상선 질환자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갑상선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경우는 드물다. 다만, 방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치료를 소홀히 해 여러 가지 증상을 안고 사는 경우도 많다.

갑상선에 발생하는 질환은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 갑상선치료제는 임신 중에 먹어도 안전하다. 요오드 역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먹는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따로 보충할 필요는 없다. 갑상선에 특별히 좋고 나쁜 음식은 없으니 입맛에 맞게 먹으면 된다.

기고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황 윤 선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한 대한민국'이다. '아름다운 선거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이루어져?'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 한 문장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공감·소통을 통해 유권자와 함께 하는 선거, 정당간 경쟁을 바탕으로 한 승복의 선거, 공명선거를 뛰어넘는 화합과 축제의 선거로서 아름다운 선거를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의 절차와 단속 등에서 투명·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전투표에서는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유권자의 투표편의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사전투표소에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 보안 강화하고, 사전투표소 1층 설치를 확대 시행하여 유권자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재외선거제도도 인터넷·우편을 이용

한 신고·신청방법을 신설하고, 영구명부제를 도입하여 투표율 제고 및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재외·선상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선거인은 귀국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후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승선예정 선원도 신고를 허용하여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

투·개표 과정의 의욕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후보자, 유권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사람만 개표참관이 가능하였으나, 후보자·배우자와 일반 유권자의 경우에도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투표지심사계수기의 활용으로 투표지 혼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표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투표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도 상당부분 보완하였다. 교통불편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등 기존 서비스 외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 작성 제출, 장애인용 특수 기표보조용구 보급, 발달장애인 등

과 의사소통을 위한 그림판 제작 비치 등으로 소외계층의 투표편의를 제공한다.

준법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비방·혹서선전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5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광역조사팀 등 모든 인력을 24시간 총 동원하여 적발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선거'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참여가 없어서는 안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4월 13일 수요일 실시된다. 투표소에 가기 전에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 정보, 정책과 공약을 확인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선거로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전파관리소의 감청 사생활 침해 우려된다

불법 무선통신을 단속하고 위치를 탐지하는 전파관리소가 사기 도박꾼들의 대화 녹음과 영상을 수집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논란을 빚고 있다. 공익을 위해서였지만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광주전파관리소 직원들은 최근 업무 도중 허가받지 않은 이상 주파수를 발견했다. 관리소는 사기도박을 암시하는 대화를 포착하고 발신지 위치를 추적해 경찰에 알렸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사기도박을 하던 3명을 검거하고 판돈과 전장에 설치된 '볼래카메라'와 무선기 및 초소형 이어폰 등을 압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리소 측의 권한 위반 문제가 불거졌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인의 영상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든 전기통신의 감청이나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소는 3일간이나

대화 내용을 청취하고 44초 분량의 대화를 녹취했는가 하면 녹화 영상을 수집해 경찰에 넘겼다.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관리소 측은 정상 근무 중 우연히 상황이 걸려들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녹음·녹화한 것으로 사사롭게 이익을 취하진 않았다고 항변한다. 오히려 범죄를 경찰에 알려 도박꾼들을 붙잡도록 적극 도왔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마음만 먹으면 불법 감청도 자행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사기도박을 속속들이 꿰뚫어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 지식과 장비가 발달했다니 그럴 만하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할수록 사생활 보호가 강조되는 마당에 불법 감청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관리 감독 기관과 경찰은 불법 여부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차체에 다른 사례는 없었는가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이어트 한약 불법 유통 지속적인 단속을

무허가 업소를 통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이 부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민생사범경찰과는 23일 마항 등이 다량 함유된 불법 다이어트 한약과 한약재 및 식품 등을 제조·처방하거나 불법 제조업소에 제조 의뢰해 유통한 한약국, 한약 도매업소, 의약품 제조업소 대표와 관계자 등 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민생사범경찰과에 따르면 이들은 무자격 한약사를 고용해 약사법에 규정한 한약 조제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조제해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 업소로부터 다이어트 한약을 구매한 사람들은 복용 후 허기, 두 손상, 피부 발진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동구의 한 약업소의 경우 2009년개부터 무허가 제조업소에 제조 의뢰한 불법 다이어트 한

약환과 식품 등 21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콜센터까지 설치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상당금액도 하여금 불법 의약품 등을 통신 판매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동구의 어느 한약품 도매업소도 2012년개부터 70억 원 상당의 한약재, 한약환 등을 제조해 전국 한약업소 등에 유통시켰다. 또한 화순군의 한 의약품 제조업소 역시 제조 일자 등을 생산일자와 달리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불법 제조된 한약재를 유통·판매 목적으로 제조해 보관한 적발됐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판매업자들의 그릇된 상술 때문인 것 같다.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민들도 입소문이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출처가 불명확한 약품은 구입하지 않는 현명한 소비의식을 갖춰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고고도(高高度)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드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을 겨냥한 전략무기다. 대기권 밖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해 분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드 배치론자들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할 의욕을 원천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실 사드는 우리 문학에서는 오래전 에 공론화한 현안이다. 소설가 김진경 씨는 지난 2014년 소설 '사드'(THAAD)에서 이 문제를 정조

사드와 문학

설에 설정돼 있다. 작가는 책 머리말에 빼 잊는 한마디를 적어 두었다. "(사드)를 받으면 중국을 잃고 안 받으면 미국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지를 나는 독자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다."

문학은 늘 현재보다 미래에 시선을 두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묵인하는 것들을 들춰내 보여 준다. 최근 인터뷰에서 만난 문학평론가 황현산 선생의 말이 생생하다.

"조선시대에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없었더라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겠

쥬. 그러나 그런 세상이 왔잖아요." 사람들은 문학이, 책이, '헬(Hell)조선'에 사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지만, 책을 멀리하는 삶이 결코 윤택할 수 없다는 점을 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근 통계가 우리를 씁쓸하게 한다. 광주에서 1년 동안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성인이 10명 가운데 6.2명으로 전국 평균(6.5명)을 밑돌았고, 전남은 5.1명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더니 말이다.

/윤영기 문화미디어부장 @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